

지난해 혼인 역대 최저...예식장 줄폐업 잇따라

광주 12%, 전남 2.6% 줄어
1997년 통계 이래 가장 적어
웨딩컨설팅업체 절반 사라져
혼수의 거리 한복 매장 자취 감춰

웨딩 관련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독산·비촌(非淸) 등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여전한 데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그나마 치르는 결혼식조차 작게 하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관련 업계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수도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젊은 층이 늘면서 아예 혼인할 예정이 없는 곳도 없는 시군이 속출하고 있다.

◇역대 최저...해마다 꺼져=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혼인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혼인건수는 4091건으로, 전년도(5560건)에 걸췌 11.9%(658건) 감소했다. 전남도 2020년 6365건에서 2021년 6201건으로 2.6%(164건)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혼인건수는 지난 199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다. 1000명 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粗)혼인율도 광주와 전남 모두 3.4%를 기록,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광주지역 조혼인율은 2000년 7%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년 만에 절반 넘게 쪼그라든 셈이다.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 예식장도 줄폐업=장사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지역 유명 예식장들이 속속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웨딩스튜디오(포토)·드레스·메이크업(화장)에다, 예식장·한복까지 포함한 결혼식 일체 행사를 기획했던 웨딩컨설팅업체 수도 절반 넘게 사라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광주시 동구 '웨딩의 거리'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예비부부들로 문전 성시를 이뤘지만 최근엔 '웨딩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하다. 이날 오후 찾아간 웨딩의 거리는 한 집 건너 문이 닫혔고 '임대' 팻말이 붙은 것도 많았다. 25년 간 문을 열었던 웨딩숍도 문을 닫았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중인 광주웨딩연합회 대표 이은수씨는 "광주에서 잘 나가던 컨설팅 업체들은 한 해 1000쌍씩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최근에는 결혼 대상자들이 줄면서 컨설팅 업체 수도 8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김중현 총장로4·5가 상인회장은 "결혼 인구가 적다 보니 혼수의 거리에 있던 한복 매장들은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젊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스톨 웨딩 문화도 확산하면서 웨딩포토를 생략하거나 대형 예식장 대신, 소규모로 특화된 장소를 골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예식장도 사라지는 추세다. 광주지역 전문 웨딩홀은 10곳, 7·8년 전 16곳에 비하면 수

자와 규모가 크게 줄었다. 시·군 단위는 더 심각하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는 예식장이 한 곳도 없다. 나주·담양·화순의 경우 가까운 광주 예식장을 이용하는 일이 잦아보니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장흥·함평·장성·완도·신안 등은 젊은 층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시골·도에서서 결혼하려는 젊은 층은 더더욱 흔치 않기 때문이다.

결혼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인을 대거 부르는 예식 문화도 변하고 있는 사람 결혼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하객도 급감, 식사 판매량 등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게 예식장들 하소연이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젊은 층들은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생활권에서 부모를 불러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웨딩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신적 손배소 신속 재판을” 5·18 유공자들 촉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와 개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4개월여 동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쟁) 40년이 지나서야 위한 결정이 내려져 때늦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고령이 된 5·18 유공자들은 빈곤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배상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현재 결정을 근거로 일부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광주와 서울에서 5·18 유공자 수백여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 우크라이나 참전 촉구

광주시민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와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YMCA는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불법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를 희망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단체는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양민 살상은 결코 정당화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며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종식과 평화를 호소한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는 모든 전쟁을 온 힘을 다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성친화 행복도시 만들어요

17일 광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어울림강당에서 열린 '생생통통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 제6기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서 시민참여단들이 여성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영구 삭제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 재유포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디지털 영상물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법안의 한계로 인해 기존 압수수색 방법으로는 신속한 수사 및 압수, 재유포 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질러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상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재테크 자문 카톡은 사기입니다”

**메시지 보내 투자 유도 후 잠적
광주경찰청, 일당 7명 구속**

“VIP 재테크 자문”
A(49)씨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유명 투자 전문 회사 소속이라는 이력도 첨부돼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했

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니 ‘덕분에 돈을 벌었다’는 후기글도 여럿이었다. 이후 불법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1만원을 보내도록 한 뒤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10만원으로 돌려줘 환심을 샀다. A씨가 투자금을 늘리면 환전을 미루며 계속 투자를 유도, 고액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재테크 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오피스텔 2곳을 빌린 뒤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모바일 메신저 광고문을 보낸 뒤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꼬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광고 발신 담당, 가짜 투자전문가, 바랍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증권·가상화폐 등 재테크 붐에 편승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多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